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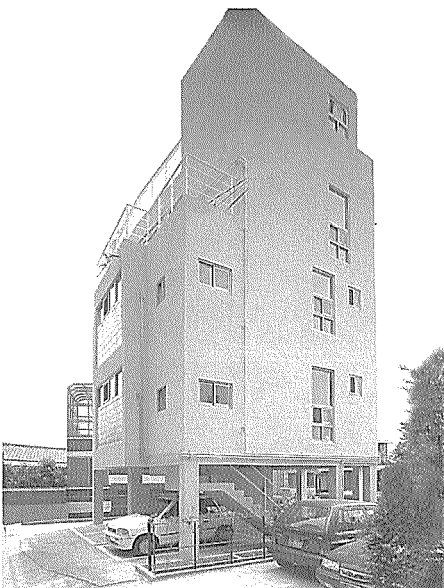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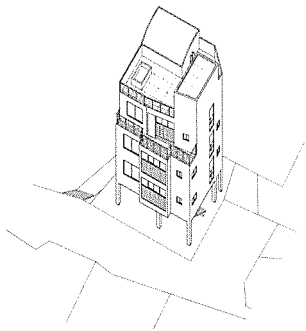
## 효창동 주택

### Hyochang-dong Residence

김석환 / 건축사사무소 터·울  
Designed by Kim Seok-Hwan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6-2
대지면적	115.70㎡
건축면적	69.31㎡
연면적	280.62㎡
건폐율	59.90%
용적률	173.18%
조경면적	180.00㎡
규모	지상4층
구조방식	R.C조
주요내장재	시멘트콜탈위 벽지, 수성페인트
주요외장재	드라이비트 시스템
기계설비	화산콘선탄트 / 최상현
전기설비	진산전기 / 유병선



이 건물의 대지는 삼각지와 공덕동 로타리로 이어지는 용마로에 건설중인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경사지형을 따라 올라간 위치여서 지붕에서는 주변으로 시야가 넓게 확보되며 주변에는 효창운동장과 용산구청 그리고 숙명여대가 산재해 있다. 대지의 3면이 도로에 접하고 남북으로 1개층의 레벨차가 있어 일조권 적용이나 지하층의 채광 확보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도시내의 개별 대지는 가로와 흐름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도시 기능에 연관된 개체로서 기능이 발휘된다. 이 주택에서 지반은 전후 레벨차의 효율적 이용과 가로와의 연관을 위해 원래의 지형과 달리 의치처럼 인공구조물로 치환되어 있다. 원래의 지반을 도려내고 구조물에 의한 지반을 형성하여 그 속을 이용하였다. 1층전체는 피로티의 주차장이다. 이 피로티는 단지 이 집의 주차기능 뿐 아니라 도시의 오픈스페이스가 되어 시선이 트이고 바람이 통한다. 그리고 지상으로 피어의 힘에 의해 떠받쳐진 주거시설이 전망을 한껏 누리며 쓰일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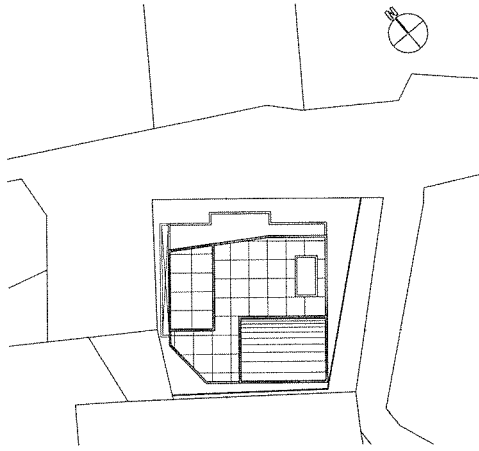
지상층은 층별로 독립되어 있다. 한 칸에 3개의 방을 나란히 배치하고 거실과 식당을 단일공간으로 개방하여 전후의 창을 통해 고여드는 햇살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주방은 조리 및수납기구와 세탁기 냉장고를 연속해 두어 주부의 동선을 줄였다. 지하층은 2세대로서 측면도로에서 별도로 독립된 출입구가 면해 있고 이 건물의 지상 동선과 분리되어 있다.

계단은 층별로 거주하는 이웃들이 접촉하는 마을길과 같은 성격을 부여하였다. 주차장에서 일자형 계단을 밟으며 살며시 들려올라가도록 한 계단은 석기질 타일과 노출된 미장면 그리고 단순한 난간 형상에 의해 담백하고 조용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계단은 수직의 가로로서 옥상의 마당과 만나며 외부공간과 순환을 이루고 있다. 계단의 끝에는 옥상의 마당이 펼쳐지고 도회지 건축의 답답함이 일시에 해소된다. 옥상 정원은 이 집이 갖고 있는 또다른 기능의 오픈 스페이스이다. 피로티와는 다른 성격의 비인 공간으로서 휴식할 수 있는 사유의 정원이다. 드넓게 펼쳐진 전망과 맑은 대기를 접하며 도시주택의 단조로움으로부터 탈피될 수 있다. 옥상에는 돌출된 계단탑과 법규상으로 제한된 크기의 다락방 매스 사이로 과정공간을 두어 마당으로서 독립된 쓰임새를 갖게하고 다락방 지붕에서 모인 물이 떨어지는 낙수대와 옥탑 사다리에 의해 크고 작은 매스들로 조형적 콘트라스트를 이루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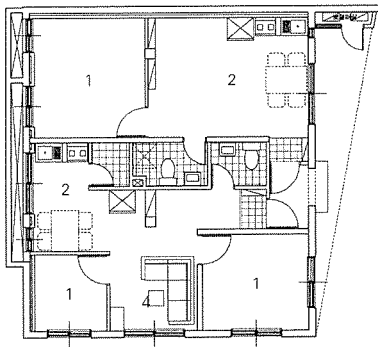
외부형태는 내부의 표출이다. 피로티에 의한 허와 실의 매스의 대비가 긴장감을 부여한 가운데 단순한 백색 색상으로 통일하여 매스의 힘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였으며 부분적으로 돌출된 형상과 재료에 의해 조형적 내용의 깊이를 갖게 하였다.

현실 법규의 요구에 따른 해결책이었지만 이 집은 피로티에 의해 도시형 주택이 덕목으로 갖는 합리성과 효율성 총족을 넘어서 마음껏 대기를 호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평소에 갖고 있는 근대건축적 사고에 충실한 양상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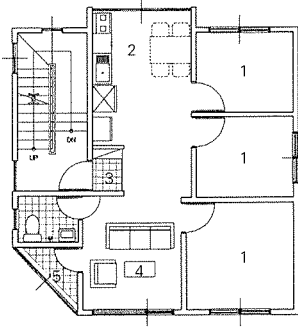
- 1. 방
- 2. 주방, 식당
- 3. 현관
- 4. 거실
- 5. 발코니



배치도



지하층 평면도



2~3층 평면도

